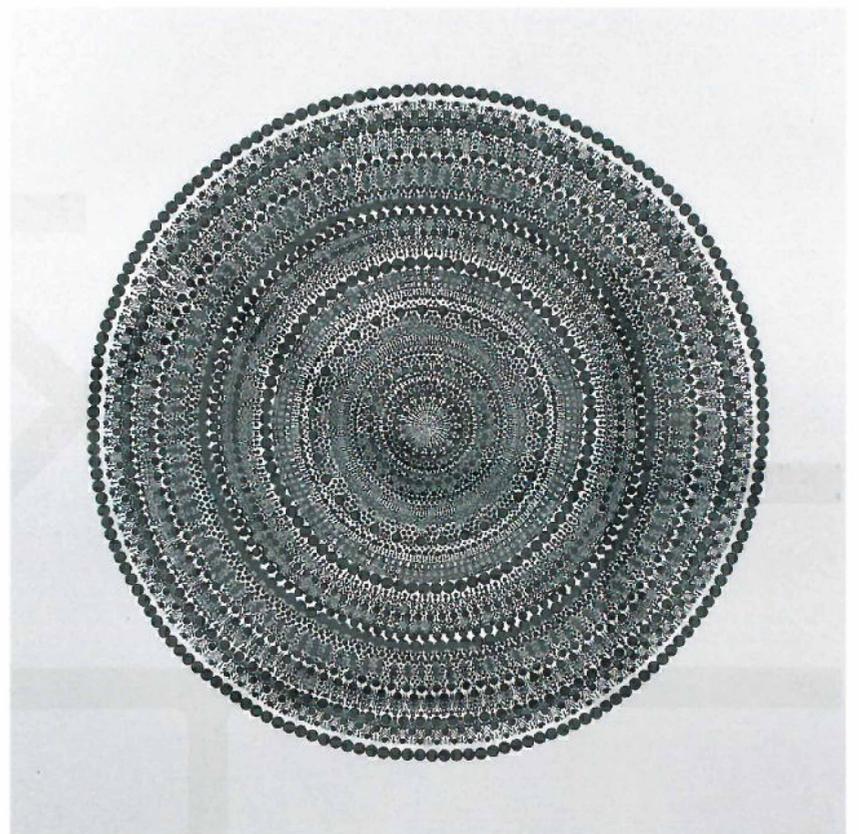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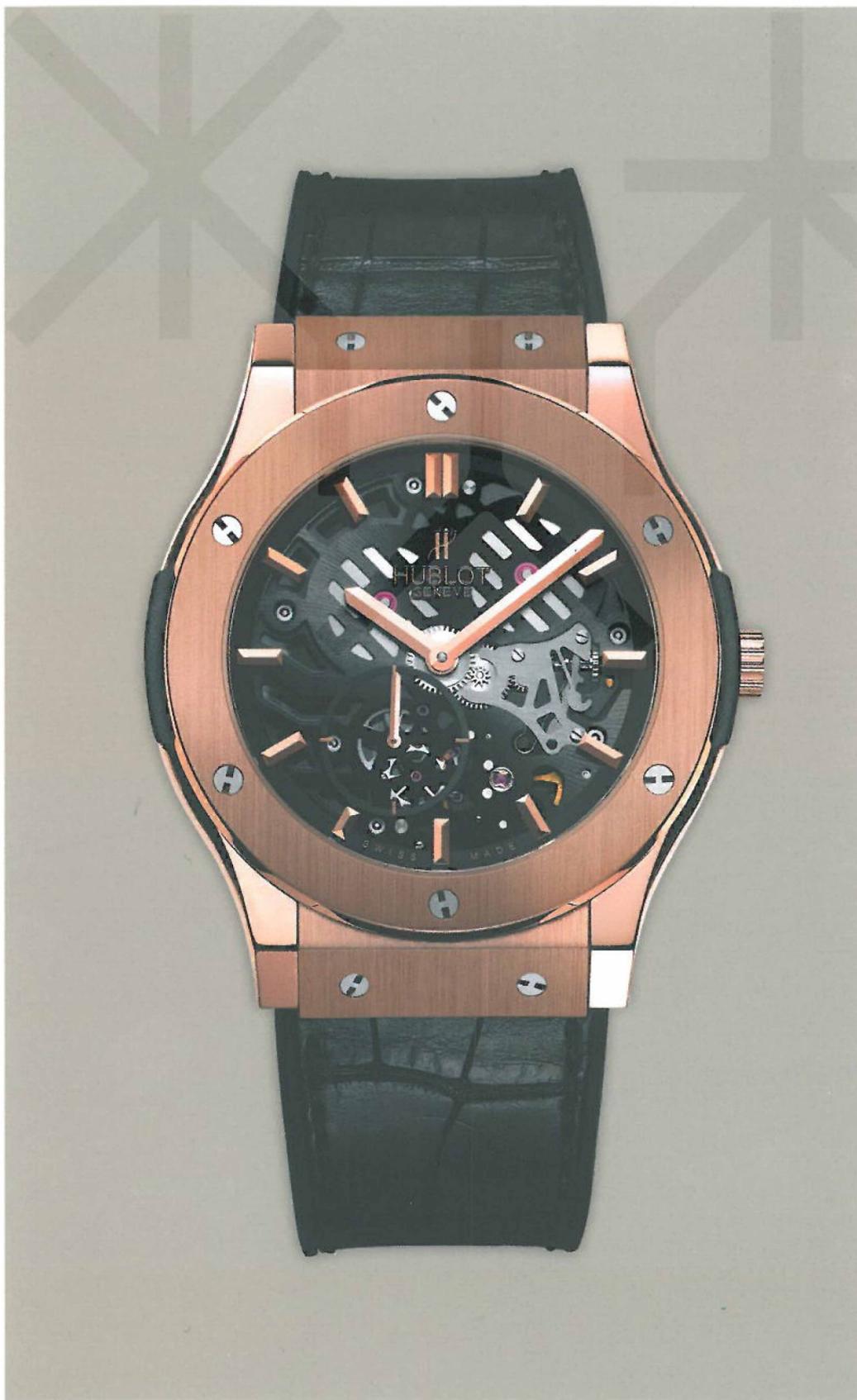


NOBL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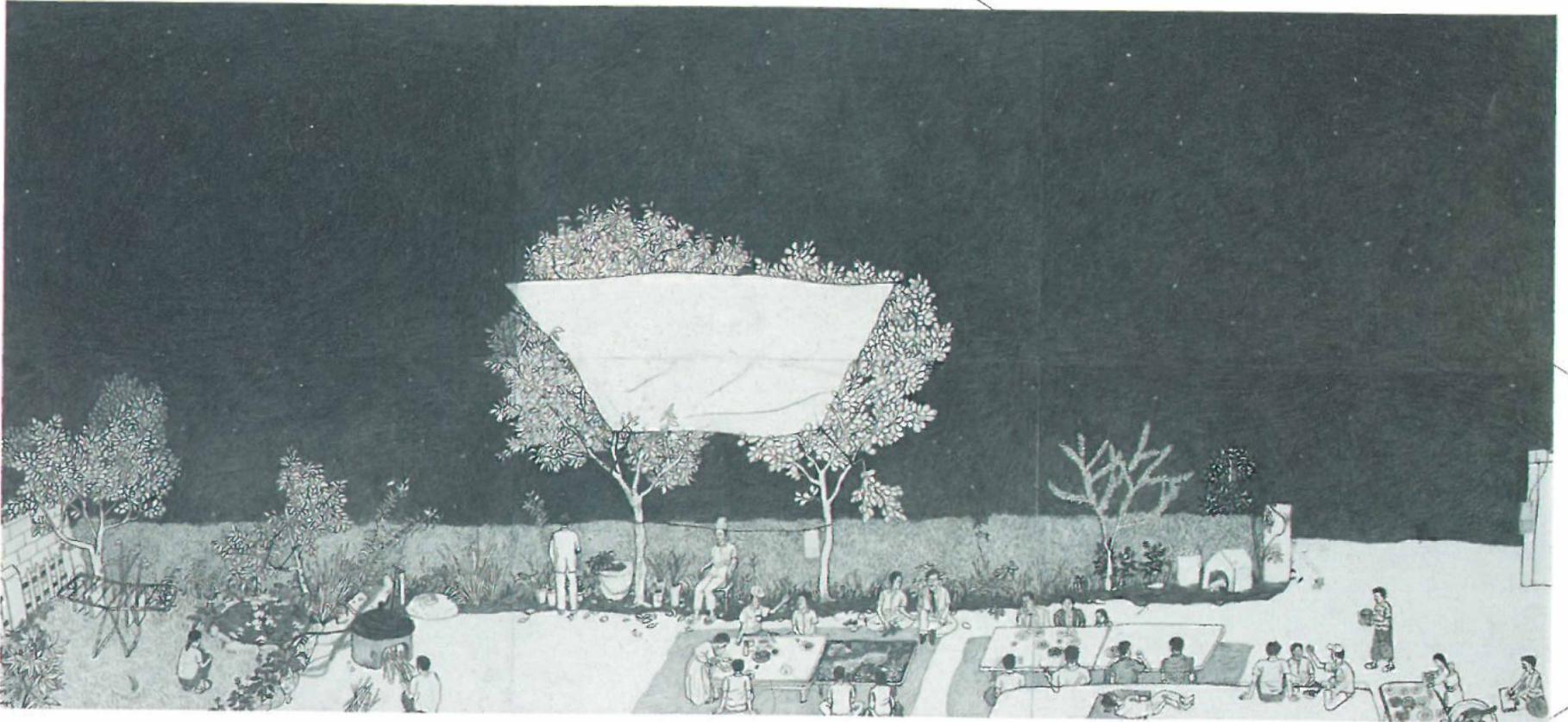
THE SHILLA

ISSUE 159 / OCTOBER / 2013





●
'밤', 문성식, 2008, 종이에 연필, 수채, 65×288cm (이미지 국제갤러리 제공)
'숲의 내부', 문성식, 2010~2011, 장지에 아크릴릭, 75×428cm (이미지 국제갤러리 제공)



●
'별과 소쩍새 그리고 내 할머니', 문성식, 2007. 종이에 연필, 48.5×106cm (이미지 국제갤러리 제공)

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이런 봄날, 연약한 애기똥풀이 우직한 나무 곁에서 슬며시 얼굴을 내밀어보다가 곧 꽃을 쑥 뽑아내 사방을 노랗게 물들이는 것을 대면할 때는 무엇에 맞서고 싶은 저항감 대신 연민이 밀려와 다정해지는 나 자신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 서울의 산은 치유의 공간이었던 거다. 소설가 박범서도 산에 자주 오른다. 그래서 산에 대한 에세이집 <나는 절대 늙지 않는다>를 펴냈다. 그에게 산이란 추억이다. 그 책의 작가의 말에는 추억이 듬뿍 담겨 있다. “내려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귀퉁이에 자리 잡은 허름한 가게에서 푸짐하고 값싼 두부를 한 모 산다. 묵이며, 국숫발 따위가 놓여 있지만 어쩐지 허전해 보이는 진열대. 주인 남자의 행색도 진열된 물건들처럼 어쩐지 영성하다. 하지만 주인 남자가 두부를 건네줄 때 손에 닿은 느낌은 좀, 다르다. 말랑말랑하고 따스한. … (중략)… 나는, 무척, 게으르다. 두부를 닦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산에 오르는 일뿐.” 그는 이 추

억을 시작으로 삼각산과 수락산, 도봉산을 비롯한 여러 산을 걷는다. 산을 타지 않고 걷는 것은 소설가라는 직업 정신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보다 산에서 마주치는 일들, 현재의 사건들이 산과 오버랩되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있었다. 궁리출판사 대표 이갑수도 산에 오른다. 그의 집은 인왕산 앞이다. 그리고 인왕산에 대한 자신의 일기를 <빛으로 그리는 신인왕제색도>와 <인왕산 일기>로 펴냈다. 재미있는 점은 전자의 책이 날마다 집에서 보는 인왕산에 대해 주로 썼다면, 후자는 인왕산에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을 쓴 책이다. “인왕산 한자리에서 매일 서울의 중심을 관찰하였다. 같은 자리에서 본다 해도 같은 풍경, 서울에는 없다. 우리가 같은 강물에 두 번 발 담그지 못하듯 서울은 같은 하늘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것들의 고요한 명상은 두리번거리며 돌아다니는 것들의 번뇌를 이기고도 남는다. 그리하여 바람이 불고 눈이 내려도 우왕좌왕하는 나무 하나 없이 언제나 인왕산 가족은 제자리에서 서늘하다. 출근하면서 바라보면 어제 그 자리에 또 인왕산. 퇴근하면서 바라보면 오늘 그 자리에 또 인왕산. 내일 보면 내일 그 자리에 또 그 인왕산.” 산에서 보는 것들은 늘 변하지만 산은 늘 그 자리에 있다. 산에 매일 오르지 않았다면 서울이 변하고 있는지 산은 그대로 있는지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 결국 이갑수는 산에서 매일 어제의 서울과 오늘의 서울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또 그 인왕산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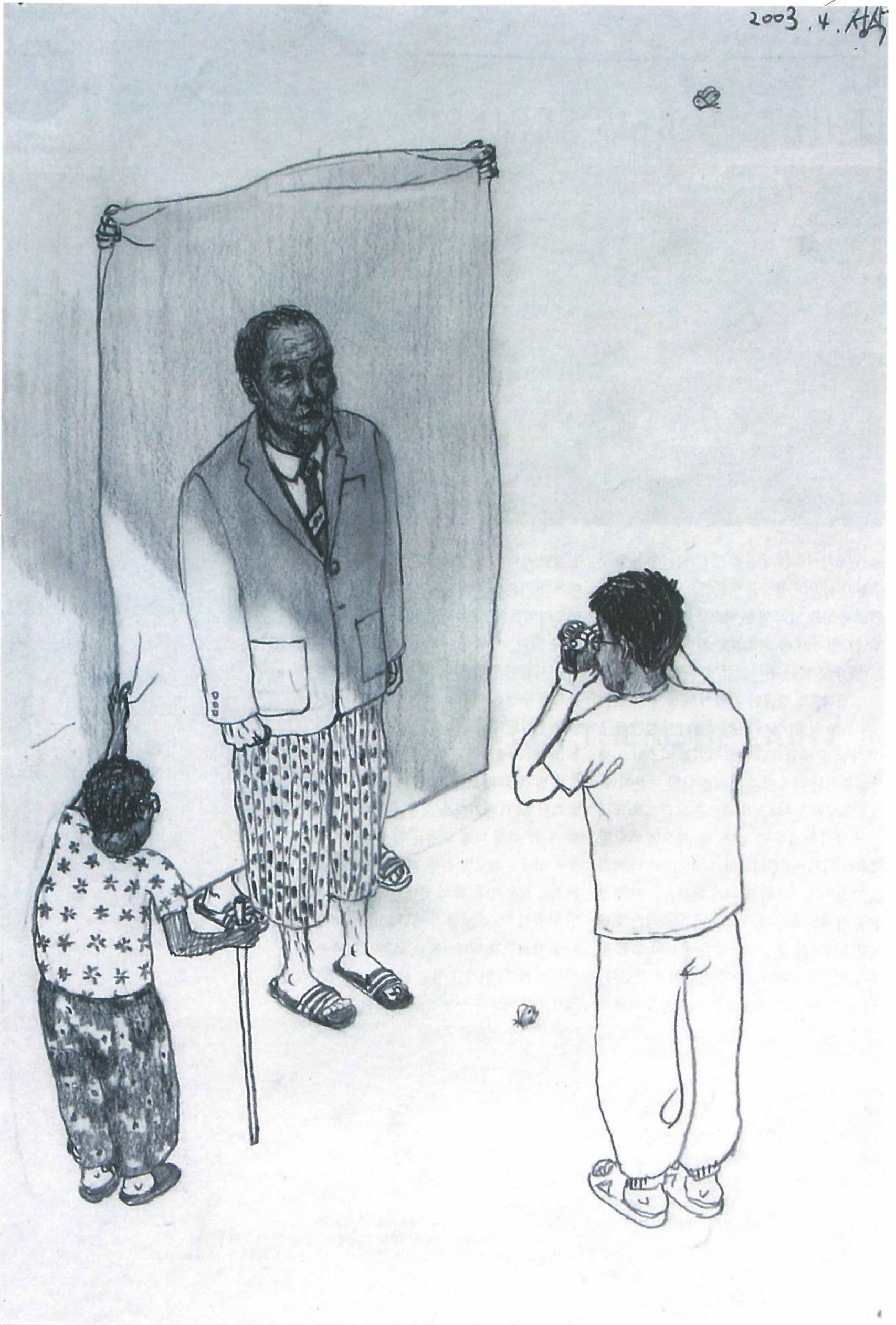
Display the Mountains of Seoul

3년 전에 아차산에 오른 적이 있다. 물론 정상까지는 오르지 못했다. 중턱에 있는 노점상에서 막걸리를 팔아서였다는 변명이 먼저 떠오른다. 불과해질 정도였다. 중턱이었기에 당연히 경치랄 것도 없었다. 보이는 건 오직 잡초와 나무뿐이었다. 그리고 사람의 발길이 닿아 반질반질한 땅과 사람 발자국이 하나 더 닿을 때마다 풀풀 올라오던 먼지 정도.

서양화가 문성식의 작품을 보면 그런 풍경이 자주 보인다. 그는 부암동 쪽 인왕산 자락에 산다. 당연히 작업실로 출퇴근하기 위해 날마다 인왕산을 지나다녔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인왕산을 주제로 한 도시의 풍경을 지속적으로 작업해왔다. 자신의 기억과 경험, 주변 풍경을 다소 고집스러워 보일 정도로 사실적이고 섬세한 필치로 묘사한 그의 눈에 포착된 인왕산은 화면 맨 뒤의 나뭇잎 한 잎까지도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어떤 미미한 사물까지 그의 시선에서는 모두 소중한 존재인 것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의식 속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산의 풍경, 특히 숲의 내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특히 작품 '밤'은 그가 겪은 산에 대한 경험의 조각을 모아 재조립했다. 풍경 안에는 울무에 걸린 고라니 울음소리와 부러진 나뭇가지 등의 사건이 배치되어 있다. 함성호가 그랬다. "서울을 알려면 오감으로 느껴야 해요." 서울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을 위해서다. 그래서 그는 한동안 서울의 소리를 녹음하려고 길을 헤집고 다녔다. 문성식도 그랬는지 모르겠다. 작가 강홍구는 은평구의 재개발 지역을 10여 년 동안 다녔다. 그곳에서 깎여나가는 산과 평평

2003. 4. HAF



'봄날은 간다 간다 간다', 문성식, 2002, 종이에 연필, 27x18cm (이미지 국제갤러리 제공)